

#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전북중기청,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코로나19 피해기업·감염증 예방 업체 우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

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의 일부(50%~70%)를 중기청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

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선지원 할 계획이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시장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9일 건협 전북도회 회의실에서 '2020년 지역건설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 “희망건설 실천, 사회적 책임 실천 구심체 최선”

건협 전북도회, '지역건설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

건설관련 학과 대학생 5명·교과생 20명 등 총 25명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19일 건협 전북도회 회의실에서 '2020년 지역건설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윤방섭 회장은 "앞으로 건설분야 이공계 살리기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인재육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혁신으로 상상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천함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

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회는 이날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전주대 노형호(토목환경공학과 3) 학생 등 지역내 학교에서 추천된 건설관련학과 대학생 5명과 고등학생 20명 등 총 25명의 건설 우수장학생에게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금까지 총 228명에게 2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인정 사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내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 익산시사, 소방출동로

확보 배전전주 피드백 프로그램 구축

한국전력공사 익산시사(지사장 김광중)는 지난 18일 익산시 신동, 영등동 일원에 사회적 가치구현 관련 '소방화재시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 도착지연'을 막기 위한 배전전주 피드백 프로그램'을 익산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군산 7080클럽 등 다중밀집지역 대형 화재시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 도착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행됐다. 익산시사는 다중밀집지역, 대학가, 상가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5개소를 선정하고, 전력설비를 활용한 불법주차금지 홍보 피드백 프로그램을 부착해 불법주차를 하는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김광중 한전 익산시사장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재난·사고로부터 대국민 보호와 안전예방 강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공인인증서 불편 사라지나?

## 통신3사 패스·카카오페이 인증 '주목'

전자서명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보안 책임을 사용자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 전자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웹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편리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IT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목적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인증서 발급과 설치 절차가 복잡해 사용자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을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불편한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사라지고 민간 업체들의 인증 서비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전자인증은 편리함뿐 아니라 현재까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뛰어난 보안성까지도 이용자들에게 각인시켜 가고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국민의 전자인증 선택권을 넓혀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천만건 넘어선 통신 3사 패스 전자인증 주목

먼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인증서가 이목을 끌고 있다. 패스 인증서는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공동으로 고객이 서비스 회원가입,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패스 인증서는 지난 1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며,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내 18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패스 인증서는 통신사의 본인인증 앱을 실행한 후 약관 동의 및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보험업계 최초로 동양생명보험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미래에셋대우, KT 등에도 간편 전자서명을 통한 고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카카오페이 인증 가입자 천만명 돌파

국내 최대 모바일 업체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초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고,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어섰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블록체인 기술도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카카오페이 인증은 ▲KB증권 M-table 앱 '로그인 및 주식거래 인증 수단'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 '자동차 보험료 조회 인증 수단' ▲삼성증권 '온라인 주주총회 투표 시 인증수단' ▲국민연금공단 '앱 로그인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모여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뉴시스

## 사회적경제기업 IT콘텐츠 제작 지원

전북도-경진원, 4개사 선발... 최대 1800만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18일 IT·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회적경제기업 4개사를 선발하고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

IT·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경진원이 3년 연속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유희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된 과제는 '관공체험 AR 콘텐츠 개발', '문화·공예 AR 홍보물 제작' 등이다. 최근 철회되어 있는 문

화·관광 산업을 IT와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경진원의 설명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문화 콘텐츠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밝히며,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전라북도의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ita.kr](http://www.jita.kr)) 및 사회적경제팀(063-711-21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미래에셋 상생플러스 펀드' 출시기념 경품이벤트

전북은행, 펀드 10만원 가입시 추첨권 1매 부여 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9일 전북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한 '미래에셋 상생플러스 펀드' 출시 기념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생플러스 펀드는 시장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시중금리나 채권형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이며, 향후 운용 및 판매보수 적립으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지역사회공헌 활동 및 금융산업 발전에 사용하는 일명 '착한펀드'이다.

출시 이벤트는 전북은행에서 상생플러스 펀드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 10만원 당 추첨권 1매를 부여(연금펀드의 경우 2매 적용)하여 자동 추첨된다.

이벤트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상생플러스 펀드는 전북은행 전 영업점과 홈페이지, 뉴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상생플러스 출시기념 이벤트 당첨자 1등 1명은 LG트롭스타일러, 2등 3명에게는 애플어파트, 아울러 매주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14주간 매주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음성뱅킹 송금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31일까지 2주간 모바일 플랫폼인 울림뱅크에서 '울림뱅크 음성뱅킹 누구(NUGU)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뱅킹 서비스는 SK텔레콤의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NUGU)'와 업무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울림뱅크에서 '지주쓰는 송금', '지주쓰는 연락처'에 계좌나 연락처를 등록하고 NUGU 버튼을 누르거나 깨우기(웨이킵) 단어 '어리아'를 부르면 AI가 반응해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음성뱅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송금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송금완료'를 작성한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7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쿠폰(500명), SPC 해피원 1만원권 모바일 쿠폰(2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